

## 『소백산대관록』(小白山大觀錄)과 목록의 시학(詩學)\*

김하라\*\*

- I. 서론
- II. 『소백산대관록』 도입부의 세계와 길동무의 형상
- III. 소백산의 근경(近景)과 다섯 목록의 시(詩): 바위, 나무, 꽃, 나물, 새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소백산대관록』을 소백산 일대를 유람한 하루 동안의 경험을 큰 줄기로 삼은 가사로 보고, 그 여정의 도입부 및 근경(近景)을 다룬 전 반부의 다섯 단락에 한해 작품론을 진행하였다. 그 다섯 단락은 소백산의 바위, 나무, 꽃, 나물, 새에 대한 상세하고 정성들인 목록으로서, 이 장소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투영된 결과이다.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체의 지도와 산맥의 계보 가운데에 소백산이라는 장소를 초점화하고, 소백산 산행을 시작하기까지를 다룬 도입부에서 감지되는 시적 화자의 형상은 소백산 인근의 거주자인 사대부 지식인 남성에게 가깝다. 비슷하게 주경야독을 하는 처지에 모처럼 산행을 나서는 시인과 두세 벗들은 선비의 복장인 복건을 착용하고 있으며 여행을 시작하는 흥취를 표현할 때도 당시(唐詩) 구절을 즐겨 차용하고 있어 그런 복장이 자아내는 분위기에 부합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행이 전개되는 상황을 반영한 다섯 단락, 즉 바위, 나무, 꽃, 나물, 새의 목록이 시사하는 시적 화자의 형상에서는 도입부에서와

\* 이 논문은 2025년도 연세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교내과제번호 2025-22-0020).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같은 젠더적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한시를 인용하는 대신 다채로운 음성상징어와 고유어 표현을 통해 소백산의 바위와 나무, 꽃, 나물, 새들이 이루어내는 흥겨운 풍경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그려냈으며, 풍경과 주고받은 마음이 스민 이 목록은 하나하나 독립된 시(詩)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편 다섯 단락 중 나물의 목록에 해당하는 것은 소백산에서 오랫동안 산나물을 채취하는 일을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빚진하고도 아름다운 고유어 표현을 만나 이루어진 시적(詩的)인 식물도감이라 할 만하며, 그 작가는 고유어 표현 역량과 산나물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갖춘 노년기 여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점은 『소백산대관록』과 『텐둥어미화전가』의 작가에 대해 고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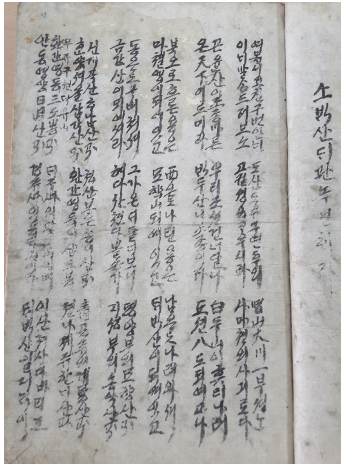
핵심어: 『소백산대관록』, 소백산, 장소, 목록, 음성상징어

## 1. 서론

이 글은 한글 가사 『소백산대관록』(小白山大觀錄)에 대해 처음 시도되는 작품론이다. 이 가사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동명의 필사본 『소백산대관록』에 “소백산대관록 언히라”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텐둥어미화전가』와 함께 수록된 가사로서 최근 언급이 되기 시작했으나<sup>1)</sup> 『텐둥어미화전가』와의 관련에 대한 논의가 일부 제기되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작품론이 시도되지는 않은 상태다. 필자는 두 가사 작품의 내적 연관을 처음 언급하며, 특히 그 주요 배경이 되는 소백산이라는 지리 공간을 통해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2)</sup> 이후 『소

1) 『텐둥어미화전가』에 대해 가장 주목되는 성과로는 박혜수,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소명, 2017)에 수록된 작품론과 주해본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정옥, 『소백산대관록 화전가』(경진출판, 2016)에 『소백산대관록』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주해가 수록되어 있어 참조된다. 다만 가사 『소백산대관록』과 한문본 『소백산대관록』에 대해서는 향후 판독과 주석 등에 대한 후속 작업이 더 필요해 보인다.

2) 김하라, 『『텐둥어미화전가』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



<그림 1> 『소백산대관록』 첫 면. 경북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 『소백산대관록』의 제17면에 해당됨. “소백산대관록언허라”라는 제목은 제16면 마지막 행에 적혀 있음

백산대관록』에 수록된 또 하나의 작품인 한문본 『소백산대관록』과 한글 가사 『소백산대관록』 사이의 관련을 집중적으로 다룬 박혜숙 선생의 연구에서는 이 둘이 공히 남성 작가에 의해 씌었을 뿐만 아니라 『텐동어미화전가』의 작가 또한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를 제기했다.<sup>3)</sup>

본고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후속 하되 한글 가사인 『소백산대관록』을 면밀히 독해하는 방식으로 작품론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만 한글 가사 『소백산대관록』은 “소백산대관록 언허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나, 앞서 언급된 한문본 『소백산대관록』의 번역이라 하기 어

렵다. 한문본 『소백산대관록』은 한글 가사 『소백산대관록』의 저본이 되기에는 내용이 훨씬 소략하다. 그리고 두 작품의 화제 배치 순서라든가 화제 자체, 세부 내용 등에서는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두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백산 인근의 지명이 상당수 겹치고 있는 점이 주목되지만, 『소백산대관록』의 한문본과 한글 가사는 별개의 작품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문본과 한글 가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그보다는 독립된 작품으로서 가사 『소백산대관록』에 온전히 집중하고자 하며, 필요한 경우 『텐동어미화전가』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명편(名篇)의 가사 『텐동어미화전가』와 그보다 훨씬 덜 알려진 『소백산대관록』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소백산과 그 인근지역으로 수렴되는 지리언어학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에 있으며,<sup>4)</sup> 이 점이 같은

전여성문학회, 2017, 405~440면.

3) 박혜숙, 『『텐동어미화전가』의 작자 문제』,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145~174면. 이 논의에서는 한글 가사 『소백산대관록』을 『소백산대관가』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고, 『소백산대관록』에 수록된 모든 작품의 작자가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구 향촌사족 출신의 남성이라고 밝혔다.

책에 수록된 이 두 작품을 자매편으로 보게 하는 첫 번째 근거라고 여긴다. 그런데 『소백산대관록』은 그와 같은 지리언어학의 구도를 「덴둥어미화전가」보다 더욱 분명하고도 광범위하게 재현하고 있는바, 전자에 대한 분석은 두 작품이 공유하는 시공을 구체적으로 재현해 『소백산대관록』이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특유의 지리언어학을 파악하는 작업에서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두 가사 작품의 내용과 형식상의 구체적인 연결지점과 공유점, 각각의 시적 화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더 논의되었을 때 『소백산대관록』은 물론 「덴둥어미화전가」에 대해서도 더 밝혀질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백산대관록』을 구성하는 장소와 지역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문제제기에도 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II. 「소백산대관록」 도입부의 세계와 길동무의 형상

『소백산대관록』은 소백산과 그 일대의 산천을 유람한 하루 동안의 경험을 큰 줄기로 삼은 가사이며, 이런 점에서 「청양산유람가」<sup>5)</sup>나 「주왕류람가」<sup>6)</sup>와 같은 일군의 ‘내방가사’와 ‘유람가’로서의 성격을 공유한다.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 및 영춘, 그리고 강원도 영월에 걸쳐 있는 소백산은 경북 봉화의 청량산이나 경북 청송의 주왕산과 거리상으로도 멀지 않은바, 지리언어학적으로도 친연성이 있어 보인다.

“여복시요 친구 번임니 이니 말씀 드리 보소”라는 『소백산대관록』의 첫

4) ‘지리언어학’은 언어가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분화한 현상을 밝히는 학문으로, 방언의 전파와 그 결과로 나타난 방언 구획을 주로 연구하는 언어학의 분과이다. 이 방법론과 관련해 김덕호,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월인, 2001)이 참조된다.

5) 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효성여대출판부, 1985)를 대본으로 삼아 임기중 편,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디비피아 제공)에 수록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작중 화자는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촌에 거주한 진성이씨 여성이며 일행 십여 명이 음력 4월 초에 점심 도시락을 싸서 도보로 청량산에 다녀온 여정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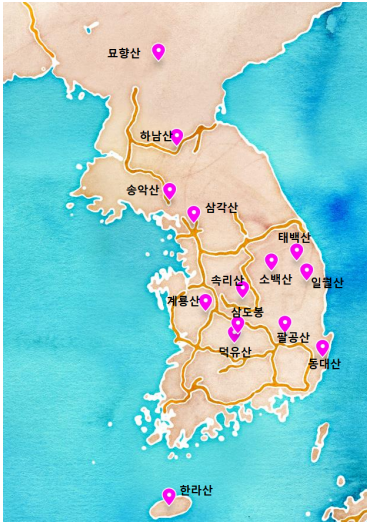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편, 『규방가사 I-가사문학대계 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을 대본으로 삼아 임기중 편,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디비피아 제공)에 수록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작중 화자는 경북 청송군 청송면에 거주한 여성이다. 창작 시기는 경오년(1930) 어름으로 보인다.

구절은 “어와 벗님네요 우리 말삼 들어보소”라는 『청양산유람가』의 첫 구절과 껍 닮아 있다. 이와 같은 유람가의 도입구는 특정 장소에 대한 경험을 동행의 벗들과 함께 기억하고 독자를 향해 확장한다는 취지를 함축하며 이 여행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람가의 친숙한 도입구로 시작된 『소백산대관록』은 유산(遊山)의 장소가 되는 소백산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이 산의 배경을 이루는 구도를 먼저 제시한다. 9년간 도산도수(導山導水: 산에 물길을 내고 물을 흐르게 함)하여 치수(治水)를 이루어낸 하우씨(夏禹氏)와 천하의 명산대천을 주유(周遊)한 경험을 녹여낸 저술인 『사기』(史記)가 가장 먼저 언급된 데서<sup>7)</sup> 이 가사의 작가가 『서경』(書經) 『우공』(禹貢)의 9주(州) 혹은 사마천(司馬遷)이 주유한 천하(天下)와 유사한 구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 구도의 정점에 놓인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영산(靈山)인 곤륜산(崑崙山)이다.

곤륜산이 조종 마른 온 天下乙 이르미라  
 우리 조선 건너 달나 백두산니 조종이라  
 白두산이 훗터 내려 도선 八도 되여고나  
 북으로 흐른 용은 마철영이 되여 있고  
 西으로 나린 용은 묘향山 되여 있고  
 남으로 내려와서 티백산이 되여 있고  
 동으로 구비쳐서 금강산이 되여서라  
 그 가운데 둘러보니 허다 산천 다 불손가  
 평양부의 묘향산과 기성부의 송악산과  
 신계 곡산 흥남산과 훈양 서울 삼각산과  
 청산 보은 송니산과 환간 영동의 삼도봉  
 靑·공주의 계룡산과 절나 제주 할니산과  
 무주 구천 덕유山과 안동 영양 日月산과  
 대구 짜의 팔공山이며 경주 짜의 동디山이라  
 이산 저산 다 바리고 티백산 일 디백이  
 어정주춤 나리와서 小白山이 되여고나

7) “도산도수 구연 후의 고궐성공 호우시라 / 명山大川—부셔는 사마천의 사괴로다”



<그림 2> 묘향산, 송악산, 허남산, 삼각산, 속리산, 삼도봉, 계룡산, 한라산, 덕유산, 일월산, 팔공산, 동대산, 태백산, 소백산

이처럼 우임금의 치수로 성립된 9주와 사마천이 편력해 저술의 밑거름으로 삼았던 천하의 산천이라는 큰 구도를 제시한 가운데 곤륜산을 그 정점에 두고, 곤륜산의 줄기가 ‘우리 조선’으로 건너 달린 결과 백두산이 한반도의 조종(祖宗)이 되었다고 하는 도입부의 기술은, 이 가사의 화자가 상정하는 세계가 조선과 한반도를 넘어 광대한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작가는 곤륜산에서 백두산으로 건너온 산줄기가 조선 팔도에 흩어져 내리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금강산, 묘향산, 태백산, 마천령으로 솟구쳤다는 대략의 그림을 그린 후, 다시 곳

곳의 명산들을 골고루 언급해 한반도 산의 계보를 또렷이 제시했으며, 그 위에 ‘태백산 일대맥이 어정주춤 내려와서 소백산이 되었다’고 하여 산들의 연쇄적 목록 가운데 최종 목적지로서 이 장소를 표시했다.

‘친구 벗님네’를 부르는 『소백산대관록』의 낯익은 도입구는 이 글에서 펼쳐질 소백산 유람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나타내며 또한 독자에게도 이 길을 함께 하자고 권유한다. 이 점은 『소백산대관록』이 『청양산유람가』와 같은 일반적인 유람가와 공유한 바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가는 우임금이 개척했던 천하이자 사마천이 『사기』 저술의 밑바탕으로 삼았던 중원의 명산대천을 세계 구도의 대전제로 먼저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목적지를 초점화하는 방식으로 도입부를 진행하고 있다. 즉 작가는 자신이 상정하는 천하에서 조종이 되는 산으로 곤륜산을 지목하고, 그로부터 산줄기가 달려가 한반도의 조종이 되는 백두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 뒤, 다시 백두산의 줄기가 조선 팔도의 동서남북에 융과 같이 내리달린다고 하여, ‘백두대간’이라는 개념과 상통하는 한반도 산줄기 인식을 보

여주었다.<sup>8)</sup> 다음으로 좀 더 상세하게 한반도의 명산을 언급하는데, 묘향산, 송악산, 하남산 같은 북쪽의 산들로부터 시작해 삼각산, 속리산, 삼도봉, 계룡산, 덕유산, 일월산, 팔공산, 동대산 등 한반도 전역의 산들은 물론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빠뜨리지 않고 호명하였다. 그러고는 이 모든 산들의 배치 가운데서 “이산 저산 다 버리고” 유독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태백산의 대맥(大脈)을 끌어와 유람의 장소인 소백산을 최후로 등장시킨다. 이처럼 작자는 시작부터 큰 지도 가운데 이 장소를 공들여 비정한다.

이와 같이 유람의 장소를 초점화하는 방식은 『주왕류람가』와 유사한 점이다. 경북 청송에 거주한 어떤 여성이 경오년(1930) 4월에 일행과 함께 도보로 주왕산을 유람한 경험을 기록한 이 가사는 “오흡다 우리 대한 세계의 명국이라 / 히동에 위치하야 반도이 외이셨다”라고 세계 속 한반도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서 시작해 삼각산,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 구월산,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등 팔도에 포진한 산을 개괄하고, 이어 경북의 팔공산, 학가산, 청량산, 금성산, 소백산, 일월산을 언급한 뒤<sup>9)</sup> 마지막으로 “청송에 주왕산은 조선팔경 하나으로 / 경북에 자랑이요 청송에 행복이라”라 하여 자신의 고장이자 유람의 장소인 주왕산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여러 동행자와 함께 유람을 떠나며, 세계지리적 지식과 국토에 대한 지식,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터전이자 유람의 장소가 되는 곳을 정확히 비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백산대관록』의 도입부는 『주왕류람가』나 『청양산유람가』와 같은 유람가 계열 가사와 분명히 공유하는 점이 있다.

8)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이 조선시대 한반도 거주자들의 자연인식 체계의 일부를 이루었다는데 대해서는 양보경, 『조선시대 자연인식체계』, 『한국사시민강좌』 14, 일조각, 1994; 김우선, 『산경표 퉁이읽기: 지명의 역사지리적 함의와 백두대간』, 민속원, 2021 참고.

9) “지방은 삼철이요 역사는 사천제라 / 일흠좋은 금수강산 팔도에 히여보자 / 경기도 삼각산은 현양에 진산이요 / 충청도 괴룡산은 호시에 옷뚝이라 / 절라도 지리산은 호남에 제일이요 / 경상도 태백산은 영남에 진산이라 / 황해도 구월산은 히서의 명산이요 / 평안도 묘향산은 단시에 일흠좋다 / 함경도 백두산은 남북에 웅거하야 / 우리조선 산지조종 그지사 모를 손야 / 영동에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으로 / 조선의 자랑이요 세계의 공원이라 / 팔도명산 그만두고 우리 경북 스물두골 / 그나마 특수명산 대강으로 조사하자 / 대구의 팔공산은 자고로 유명하고 / 안동에 학가산은 웅장귀로 흥찬롭다 / 이안에 청양산은 삼십육봉 일흠있고 / 의성의 금성산은 산기도 명려하다 / 순흥에 소백산과 여양의 일월산은 / 아모리 소읍인들 산이름 없을손나”(『주왕류람가』)

그런데 『소백산대관록』의 도입부의 시적 화자와 그 동행자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주왕산이건만 큰맘 먹고 유람을 나선 『주왕류람가』의 ‘우리 일행’이나 ‘점심 보자기를 들고 험한 산길을 지체 없이 올라가는’ 『청양산유람가』의 ‘십여 명 벗님’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주왕산과 청량산을 유람하는 동행자들은 “우리의 여자 습관으로 규중에 침복하여 / 한 류람 못한 것이 평생에 여한이라”(『주왕류람가』)라 하거나 “헛부다 여신이여 여자됨이 극분하다(…) 천비 같은 여자 몸이 못 배움이 자탄일세”(『청양산유람가』)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배움과 여행에 대한 갈증을 지닌 경북 지역 여성이다.

이에 반해 『소백산대관록』 도입부에는 화자와 동행자의 성별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소백산을 함께 노닐 길동무들은 ‘우리 역시 이곳 있어’라는 말에 보이듯 소백산에 거주하는 이웃이며 주경야독에 잠심하느라 자신의 터전을 노닐 여유를 갖지 못한 부지런한 생활인으로 그려진다. 이 소백산의 거주자들은 ‘이제야 생각하니 팔도강산 다 못 봐도 / 소백산도 명승지라 한번 올라 터회(攄懷)하세’라며<sup>10)</sup>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을 새롭게 보며 생업과 공부에 지친 서로의 마음을 풀어보자고 한다.

가자 " " 가자셔라 게 어드로 가잔 말가  
 다른 산의 갈 것 읍시 소백산으로 가자셔라  
 유산가세 " " " " 아니 가든 못허리라  
 망혀을 신너라 죽장을 드러라  
 담비씨乙 손의 들고 빅복건乙 돌너쓰고  
 二三체이 동행하여 명山大川 차자간다

이들은 ‘가자 가자 가자스라’라며 소백산을 향하는 자신들의 발걸음을 ‘유산’(遊山)이라 일컬으며, ‘유산가’(遊山歌)에 항용 보이는 망혜(芒鞋)와 죽장(竹杖) 같은 익숙한 행장을 꾸린다. 이에 더해 챙기는 담뱃대와 백복건(白幅巾)은 앞서 ‘주경야독’이라 했던 처지와 맞물리며 이 유산객(遊山客)들에게 사대부 남성에게 가까운 형상을 부여한다. 담뱃대가 남성에게 더 많이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거니와, 복건(幅巾)은 사대부 남성이 사적(私的) 시간

10) “우리 역시 이곳 있어서 유산유수 조타회되 / 주경야독 잠심하여 혼 번 귀경 못허더니 / 이제야 생각하니 팔도강산 다 못 봐도 / 소백산도 명승지라 혼 번 올라 터회하세”

을 보낼 때 착용하는 대표적인 복식임으로써다. 세종 때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를 지낸 권홍(權弘)의 졸기(卒記) 중의 “은연히 산림(山林)의 취미가 있어 복건(幅巾)과 여장(藜杖)으로 소요하며 자적했다”(隱然有山林之趣, 幅巾藜杖, 逍遙自適)<sup>11)</sup>라는 구절이나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시 「계우(季愚)와 함께 백운사(白雲寺)를 찾아 진백사(陳白沙)의 시에 차운하다」(同季愚訪白雲, 次陳白沙韻) 중의 “필마로 쓸쓸히 옛 숲에 돌아오니 / 복건 쓰고 가는 곳마다 가슴이 트이네”(匹馬蕭然返故林, 幅巾隨處散疎襟)라는 구절을 보면 복건이 한가히 산수유람을 할 때 어울리는 복장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여행의 출발점에서 동행자인 두세 명의 벗들은 소백산 인근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글 읽기를 놓지 않고 있는 양반 계층 남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길을 나서는 흥겨움과 소백산으로 접어드는 길의 풍경을 읊은 다음 단락은 것처럼 서두에 제시된 유산객의 형상과 비교적 잘 어울린다.

잇씨가 어네씨야 씨마춤 삼월이라  
 산조 논 펠 〃 나라 가는 길乙 인도하고  
 방화는 만지眞성강이요 고목은 음풍디익언乙  
 운회이협봉전단이요 슈락춘강천제류라  
 임흥슈성은 현소어요 암전슈성은 引空유乙  
 곡풍은 샬 〃 부러 유산식의 선자로다  
 흥의 게워서 가는 길이 무어시 그리 밧불손가  
 이 경 보고 저 경 보며 흐를 〃 〃 가다 보세

나선 길의 풍경은 봄이 한창인 음력 3월이다. 산새가 길을 인도하고 땅 위에 꽃들은 하나 가득 피어 있으며, 늙은 나무는 바람 소리에 읊조리며 유산객에게 말을 건넨다. 구름은 골짜기를 지나 산봉우리를 넘어가고 봄 강물은 하늘가로 흘러간다. 골짜기의 바람이 살살 부채질을 해 주니 흥이 난 유산객들은 바깥 일도 없이 여기저기 경치를 보며 길을 간다. ‘흐늘흐늘’은 그런 그들의 느긋하고 우아한 발걸음을 잘 표현하는 말이다.<sup>12)</sup>

11) 『조선왕조실록』 세종 28년(1446) 12월 28일 조.

12) 『열녀춘향수절가』(정길수 역, 돌베개, 2025) 35년의 “월태화용(月態花容) 고운 태도 완보(緩

이렇게 길을 나선 기쁜 마음을 흥겹게 그려낸 이 단락에는 ‘호늘호늘’ 같은 고유어 음성상징어도 간혹 보이거나, 한글로 음을 표기한 한자어와 한시구(漢詩句)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 점은 앞서 보인 주경야독하는 사대부 지식인으로서의 동행자 형상과 부합한다. 예컨대 시원한 바람을 맞는 즐거움을 표현한 “곡풍은 살〰 부러 유산식의 선자로드”와 같은 구절에서는 ‘골바람’이나 ‘부채’ 같은 쉬운 말 대신 ‘곡풍’(谷風)과 ‘선자’(扇子)와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가사를 구성하는 어휘 중 한자어의 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이어지는 다음 단락은 한시구의 인용이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인다.

차문노상명니키는 불려차쳐호강산이라  
 노입연하경자유흥니 슈지화슈시선경가  
 압페 바우는 안고 돌며 뒤의 창벽은 지고 가니  
 원상훈산석경사는 이를 두고 이르미라  
 청송녹죽 식이길노 괴염 동실 올라가니  
 一편고성만인산은 이런 산니 아닐년가  
 운반고봉상작우요 조명유곡자성기라  
 석경방초난 슈사복이요 산문나월은 청원세라

이 가운데는 두목(杜牧)의 시 「산행」(山行) 중의 “遠上寒山石徑斜”(멀리 찬 산 비스듬한 돌길을 오르니), 왕지환(王之渙)의 시 「양주사」(涼州詞) 중의 “一片孤城萬仞山”(한 조각 외로운 성은 만 길의 산에)과 같이 잘 알려진 당시(唐詩)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고, 최호(崔顥)의 시 「화음을 지나며」(行經華陰) 중의 “借問路傍名利客, 無如此處學長生”(길가의 명리객에게 묻노니 / 이 땅에서 불로장생 배우는 게 좋지 않으랴)를 “借問路上名利客, 不如此處好江山”(길 위의 명리객에게 묻노니 / 여기 좋은 강산이 좋지 않으랴)라고 하거나, 설도(薛濤)의 시 「무산 사당에 배알하다」(謁巫山廟) 중의 “路入烟霞草木香”(길은 안개와 노을로 접어들고 초목이 향기롭네)를 “路入煙霞景自幽”(길이 안개와 노을로 접어들자 경치 절로 그윽하

步)로 건너갈새, 호늘호늘 월서시토성습보(越西施土城習步)하던 걸음으로 호늘거려 건너올 제”라는 구절 참조.

네)라고 하는 등 당시의 구절을 변형하여 쓴 것도 있다. 그 외 청송녹죽(靑松綠竹), 운반고봉(雲蟠高峯: 구름 서린 높은 산봉우리), 조명유곡(鳥鳴幽谷: 새 우는 깊은 골짜기), 석경방초(石徑芳草: 돌길의 향기로운 풀), 산문나월(山門蘿月: 산어귀 담쟁이 사이 뜬 달) 등 깊은 산중의 자연풍광을 형용하는 익숙한 한시 어구로 눈앞의 경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도, 작자가 한시를 향유할 만한 처지에 있는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백산대관록』의 도입부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출발해 한반도 산줄기의 흐름과 배치를 제시하고, 백두대간을 구성하는 태백산의 줄기를 유독 부각한 가운데 독자의 시선을 소백산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여행의 출발 지점에서 작가는 자신과 동행자들을 소백산 인근의 거주자이자 주경야독하는 생활인으로 양반 남성의 형상에 가깝도록 설정했고, 그런 설정에 걸맞도록 산행을 시작하는 흥취를 사대부 남성의 언어, 즉 한시와 한자어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산행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곧 달라지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그 점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소백산의 근경(近景)과 다섯 목록의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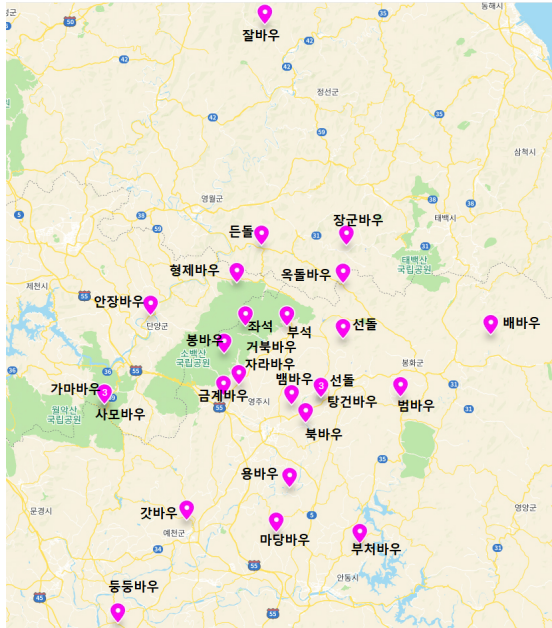
#### 바위, 나무, 꽃, 나물, 새

이어지는 다섯 단락은 실제 산행을 하며 소백산의 바위와 나무, 꽃, 나물, 산새 등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근경(近景)이 연속되는 것과 같은 여행 서사를 이룬다. 다시 말해 산길을 걷다 발을 멈춰 소백산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자연물을 눈여겨 보고 호명하는 여정이 반영된 서사라 하겠으며, 이는 크게 보아 그 존재들의 이름을 망라한 목록이라는 형식으로 귀결된다. 그 이름들이 대체로 고유어로 되어 있거니와 소백산의 일부를 이루는 그 작은 존재들을 정성 들여 형용할 때도 고유어로 된 음성상징어가 두루 쓰이고 있어, 앞서 소백산과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던 도입부에서 한자어와 한시를 사용하던 양상과 대조적이다. 다음은 그 첫째 단락으로 소백산 바위의 목록에 해당한다. 작가는 본격적인 소백산 산행을 그 바위 이

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 또한 저편乙 바라보니 앓다 저 바우 이상하든  
 송낙乙 쓰고 염불하니 붓처바우 분명하다  
 덜능 드러 공중바우 변적 드러 든돌이며  
 펼 " 나라 봉바우요 등 " 뜻짜고 부석이라  
 응송구려 범바우요 생적 쉼여 특기바우  
 서리 " " 용바우요 구불 " " 빅암바우  
 목아지 움칠 자리바우 등어리 넘죽 거북바우  
 장단 치난 북바우요 등괴덕궁 등 " 바우  
 티평 안자 좌석이며 옷дук 섯는 선돌리요  
 허리가 압과 눈돌리요 삼경사경 잘바우라  
 금싱여슈 금계바우 옥출곤강 옥돌바우  
 들 " 구부려 슈레바우 두뢰조군 가마바우  
 반석이 널너 " 분바우 사방이 반듯 마당바우  
 만경장파 비바우오 들 가운데 켈농바우  
 돌리 썩가틴 오누바우 돌리 마조 선 형제바우  
 선익乙 다라 사모바우 학정이 반듯 탕건바우  
 머리가 둥그려 갓바우 허리가 질죽 안장바우  
 팔척장신 장군바우 즐기 잘 " 머역바우

㉠은 소백산의 바위를 발견하여 호명한 단락이다. 이 단락에 언급된 바위의 이름은 실제로 소백산과 그 인근의 바위에 붙은 자연 지명으로 상당 부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유명한 부석사(浮石寺)의 바로 그 부석을 비롯하여 봉바우, 용바우, 자라바우, 거북바우, 북바우, 좌석, 금계바우가 경북 영주시에 있고, 범바우, 배암바우, 선돌, 누운돌, 옥돌바우, 배바우, 탕건바우가 경북 봉화군에 있다. 그 외 강원 영월군의 든돌과 장군바우, 충북 단양군의 형제바우, 가마바우, 사모바우, 안장바우, 경북 예천군의 등등바우와 갓바우, 경북 안동시의 부처바우 등이 확인된다. 『소백산대관록』 바위의 이러한 분포는 이 목록을 구성한 이의 세계가 현재의 경북 영주시를 중심으로 하되 소백산 권역에 해당하는 충북과 강원, 경북 지역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은 소백산 기슭에 거주하는 작가에게 익숙한



<그림 3> 『소백산대관록』의 바위 지도

세계의 곳곳에 자리잡은 ‘아는’ 바위들의 목록인 것이다.

한편 첫머리의 ‘또한 저편을 바라보니’는 시선을 돌리도록 해 화제의 전환을 이끄는 일종의 관용구로서 『소백산대관록』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아따, 저 바우 이상하다!’라는 감탄문과 연결되어 소백산의 바위들을 발견하는 놀라움을 이끈다. ‘이상하다’라는 이 말은 ‘신기하고 독특하다’는 뜻으로, 저마다의 바위가 소백산의 고유한 풍경을 구성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함축한다. 또한 ‘이상하다’는 이 말은 이후의 몇몇 단락에서 거듭 사용되며 작가와 동행자들에게 익숙한 터전인 소백산을 새롭게 발견하며 느낄 법한 기분 좋은 낯섬을 표현하게 된다.

Ⅰ단락에서는 ‘덜렁’, ‘번쩍’, ‘펼펼’, ‘둥둥’, ‘경적’, ‘서리서리’, ‘구불구불’, ‘둥기덕궁’, ‘우뚝’, ‘돌돌’, ‘반듯’, ‘질룩’, ‘찰찰’ 같은 고유어 어휘가 다수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점은 본격적인 산행에 접어들기 전의 도입부가 한자어와 한시 구절로 점철되어 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다채로운 고

유어 어휘는 ‘구불구불 배암바우’, ‘서리서리 용바우’, ‘경적 뛰어 토끼바우’ 등 바위의 모양을 적실히 형용해 이 목록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 결과 생동감이 부여된 소백산 바위의 목록은, 지금 이 작품의 갈래가 고전시가에 속한다는 점에 부합하도록 그 자체로 한 편의 시(詩)를 이룬다.

소백산과 그 인근의 바위 33개의 이름으로 구성된 이 목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땅에 굳게 뿌리박힌 바위의 속성과는 일견 부합하지 않는 움직임의 감각이다.

먼저 ‘덜렁 들어 공중바우’나 ‘번쩍 들어 든돌’, ‘둥둥 떴다고 부석’, ‘태평히 앉아 좌석’, ‘우뚝 섰는 선돌’, ‘허리가 아파 눈돌’, ‘삼경사경 잘바우’에 보이는 이름들은 들려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작가는 그 바위들이 그 상태에 변함없이 고정된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둥둥 떠오르고 번쩍 들어올려지고 우뚝 일어서고 태평히 앉고 허리가 아파 눕고 밤이 깊어 잠에 든다고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그린다. 이에 바위는 생기와 정감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로 상상된다.

이어서 이러한 생동감을 더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동물 형상의 바위들이다. ‘봉바우’, ‘범바우’, ‘토끼바우’, ‘용바우’, ‘배암바우’, ‘자라바우’, ‘거북바우’와 같은 이름은 분명히 동물의 형상에서 유래한 것일 텐데, 작가는 그 이름 앞에 ‘펼펼’, ‘경적’ 같은 고유어 부사로 수식된 동작을 더해 놀라운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에 바위들은 봉황이 되어 펼펼 날고, 범이 되어 웅웅 그리고, 토끼가 되어 경충 뛰고, 서리서리 용으로 승천하고, 뱀이 되어 구불구불 기어 가고, 자라가 되어 모가지를 쪽 움치고, 거북이 되어 넙죽 엎드리는 등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상상되는 것이다.

동물이 아닌 사물의 형상을 본떠 명명된 바위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임이 부여된다. 수레바우는 돌돌 굴러가고, 두 패의 교군(轎軍)이 변갈아 메고 가는 가마바우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배바우는 넘실대는 만경창파(萬頃蒼波)에서 흔들흔들 나아갈 터이다. ‘금생여수 금계바우’나 ‘옥출곤강 옥돌바우’ 역시 여수에서 금을 채취하고 곤강에서 옥을 캐내는 동작을 함축한 표현이다. 심지어 미역 줄기와 비슷한 무늬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을 미역바우조차 ‘줄기 활활’이라는 형용을 통해 바다에서 갓 채취된 미역 줄기의 퍼들거리는 생기와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 사물의 형상과 관련

된 것으로 ‘장단 치는 북바우’와 ‘둥기덕궁 둥둥바우’가 더 있는데, 이 바위들은 동작뿐 아니라 소리까지 갖게 되며 독자의 감각적 상상력을 다채롭게 자극한다.

이렇게 사물의 형상과 관련된 바위의 목록은 그 이름의 유래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동작과 소리를 형용하는 표현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재현된다.

다음으로 인간적 속성과 연관된 이름의 바위들이 있다. 부처바우와 장군바우, 권농바우는 사람의 사회적 활동과 연관되며 특유의 생동감과 더불어 태도와 인간적 분위기를 갖게 된다. 부처바우에는 송낙을 쓰고 염불을 하는 종교적 분위기가, 장군바우에는 팔척장신 헌걸찬 장군의 위엄이, 권농바우에는 들 가운데서 농사를 보살피는 권농관(勸農官)의 사려깊음이 더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사모바우와 탕건바우, 갓바우는 셋이 나란히 나열되며 이러한 복식을 착용하는 양반 남성의 형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와 유사한 인간적 느낌을 주게 된다. 끝으로 이러한 인간적 분위기에 어떤 정감까지 더하는 바위들도 있다. ‘돌이 똑같은 오늬바우’와 ‘돌이 마주선 형제바우’라는 표현은 꼭 닮은 오늬이와 마주 앉은 형제의 형상을 통해 바위에 살아 있는 느낌과 더불어 다정한 마음을 불러넣기도 한다.

이처럼 소백산 바위의 목록이 자아내는 생동감과 다정함은 열거의 수사법으로 구성된 이 단락을 소백산 바위를 읊은 한 편의 시(詩)로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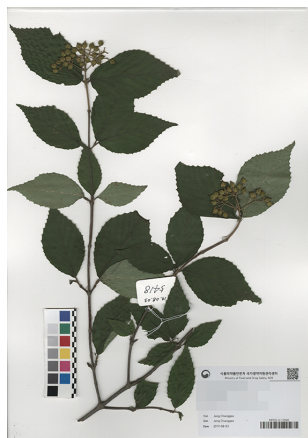
기실 목록은 유서 깊고 창조적인 문학 양식으로, 시인들은 목록이라는 단순한 양식이 주는 기쁨을 잘 알고 있었다.<sup>13)</sup> 『소백산대관록』의 작가인 익명의 시인 역시 자신이 잘 아는 바위의 목록을 쓰며 즐거워했으리라 생각되며, 그의 기쁨은 이 목록의 고유어로 된 형용어와 바위의 이름들이 자아내는 충만한 생동감과 정다움의 리듬에 깊이 스며 있다.

바위를 다 구경한 시인은 예의 ‘또한 저편을 바라보니’라는 말로써 시선을 돌려 소백산의 무수한 나무들을 향한다. 그는 앞서 바위에 대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는’ 나무들의 목록을 만든다.

13) 움베르토 에코, 오숙은 역, 『궁극의 리스트: 문학과 예술 속의 목록사』, 열린책들, 2010; 브라이언 딜런, 김정아 역, 『목록에 관하여』, 『에세이즘』, 카라칼, 2023, 35~44면; 진은영, 『하나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호명하는 다정함이 빛은 시』,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마음산책』, 2024, 112~118면.

② 그 귀경은 그만두고 쏘흔 저편乙 바리보니  
 온갖 잡목 무성흔디 무슈흔 나무 다 알손가  
 만경창과 바나무요 발긋〃〃 디초나무  
 밥이 여러 밥나무요 오시 여러 옷나무라  
 입 그렸다 상사나무 양반 상늬 칭〃 나무  
 휘〃 친〃 감나무요 울탕불탕 모기나무  
 사시장청 소나무요 정〃 독입 전나무라  
 남으로 췌는 북나무요 북으로 췌는 남목이라  
 동희상의 부상목과 남훈전의 오동나무  
 이 가지 저 가지 노가지요 이 나무 저 나무 피나무라  
 강원감사 동뵈나무 소상반죽 디나무라  
 결리 발나 덧쭈나무 구불〃〃 용목이며  
 잡바졌다 잣나무요 업피졌다 업나무라  
 넘적〃〃 썩가나무 벗썩〃〃 속소리라  
 썩고리 펄〃 노른지요 오리가 등〃 물가나무  
 조붓〃〃 지랑나무 부웃〃〃 보춤나무  
 발〃 쓰난 사시나무 실녕〃〃 신나무라  
 셔기영농 셔나무요 지장발나 지장나무  
 들춤 산유자 박다나무 인가목 마가목 들미나무  
 몽톡〃〃 싸리나무 물긋〃〃 광디싸리  
 음양乙 좃차 합다목과 이름 좃타 나도박달  
 울긋불긋 단풍나무 푸룻〃〃 무푸뢰라  
 숲탄 잡목이 무성흔여 울밀흔게 우거진 디  
 다리 명덜 머로 명덜 쥐다리 덤불 놉팡귀가  
 이리저리 셔로만나 원불상니 링세흔고  
 얼크려지고 트러져서 휘〃 친〃 감겨곳나  
 밤이나 낮지나 혼몸되야 사시장창 춤乙춘다

소백산은 온갖 잡목들이 무성한 산인데, 시인은 그 무수한 나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이논’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준다. 위의 ②단락에 수렴된 나무는 모두 45종으로, 그중에는 전설상의 부상목(扶桑木)이나 중부 내륙지방에 자라지 않는 남목(楠木: 녹나무) 같은 것이 극히 일부 섞여 있지만 절대다수는 실제로 소백산 일대에 자생하는 나무들이다.<sup>14)</sup>



<그림 4> 충충나무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나무들의 목록은 소백산 거주자이기도 한 작가의 구체적 삶을 반영한 것이 되는데, 특히 “밥이 열어 밥나무요 옷이 열어 옷나무”는 그런 견지에서 흥미로운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는 밥나무와 옷나무를 자음동화에 의해 같은 소리를 내는 “밥나무”와 “옷나무”라고 달리 표기하는 일종의 언어유희를 시도했는데, 그것은 나무에 열릴 리 없는 옷과 밥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의 조건을 환기시키며 김소월(金素月, 1902~1934)의 『옷과 밥과 자유』 같은 시와 유사한 결핍의 정서를 내포하게 된다.<sup>14)</sup> 다음의 “양반 상놈 충충나무” 같은 구절은 반상(班常)의 구분이라는 봉건적 통념을 일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유독 양반의 계급의식이 두드러졌다고 잘 알려진 경북 북부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가<sup>16)</sup> 반영된 특수성을 보여준다.

또한 옷나무와 밥나무, 충충나무 세 나무와 관련된 이 구절은 앞서 도입부에서 주경야독하던 유산객의 상황과 맞물리며 소백산 인근에 거주하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양반계급 구성원의 형상을 작가에게 부여하기도 하는

14)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자원조사연구팀,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1998.

15) “공중에 떠다니는 / 저기 저 새여 / 네 몸에는 털 있고 깃이 있지. // 발에는 발곡식 / 눈에는 물벼 / 놀하게 익어서 수그러졌네.(…)”와 같은 구절을 참조할 수 있다. 『옷과 밥과 자유』는 1925년에 발표되었다. 한편 『소백산대관록』이 1938년에 필사되었고 『텐둥어미화전기』의 창작시기가 20세기 초로 추정되는(김하라, 앞의 논문) 점을 감안한다면 『소백산대관록』과 『옷과 밥과 자유』는 동시대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비교 대상이 된다.

16) 경북 안동을 문화권의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반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태도를 일상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오래 견지해 왔으며 이는 남녀 어린이가 의정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할 때 ‘알양반’이라고 칭찬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김서령,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푸른역사, 2019)에 수록된 작가의 유년기 일화 참조. 김서령(1956~2018)은 경북 안동시 임하면이 고향인 여성 작가이다. 또한 한국어에서 ‘예의가 없는 남자’를 일컫는 말로 ‘불상놈’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데 반해 경북 방언에서는 ‘행신머리나 반미(班味)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돌상놈/돌쌍놈’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이상규,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2000, 150면) 이 역시 반상의 구분에 대한 이 지역 거주자들의 특정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데, 이처럼 나무의 목록은 목록 작성자의 삶의 양태를 추론할 단서를 줄 정도로 현실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 구절이 암시하는 양반계급 구성원의 성별은 꼭 남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며, 여기 함축된 바는 이 계급의 남녀가 공유한 보편적인 상황이나 통념에 가까워 보인다. 즉 반상의 구분을 유지하려 하고 옷과 밥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양반계급을 준거집단으로 삼고 있는 경북 북부 남녀의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지만 ②에 더 많이 수렴되어 있는 것은 소백산의 나무들에 대한 작가의 앎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백산 나무들에 대한 작가의 경험적 지식은 우선 45종의 나무를 포함한 긴 목록 자체에서 드러난다. 1998년에 간행된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참조하자면 45종 중 상당수가 소백산의 식물자원으로 여전히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②단락의 잣나무, 소나무, 붉나무, 물푸레나무, 옷나무, 박달나무, 대쪽나무(쪽동백나무), 노린재나무, 전나무, 인가목 등은 현재에도 유효한 소백산 나무의 목록이 된다.

그리고 이 목록의 과반수가 나무의 특징을 포착해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나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적 지식을 원천으로 확충된 이 목록은 하나의 나무도감이 된다.

더 나아가 작가는 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형용한다거나, 나무의 이름과 뜻으로 언어유희를 시도하며 이 목록을 또 하나의 시(詩)로 만들고 있다. ‘밭갈밭갈 대추나무’, ‘울탕불탕 모과나무’처럼 열매의 색깔과 모양을 말하거나 ‘사시장청(四時長靑) 소나무’, ‘정정독립(亭亭獨立) 전나무’처럼 늘푸른 모습이나 우뚝하니 서 있는 수형을 말한 구절들은 오히려 평범한 것에 해당하거나, 소백산의 우점종(優占種) 중 하나인 참나무과의 나무들을 읊은 데 이르러서는 사정이 더욱 특별해진다.<sup>17)</sup>

‘넙적넙적 떡갈나무 버썩버썩 속소리’와 같은 구절은 같은 참나무과에 속하는 떡갈나무와 속소리나무(신갈나무)를 비교했다. 떡갈나무는 참나무과의 나무 중에서 잎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바 ‘넙적넙적’은 잎이 넓고

17) 이하에 인용한 나무와 풀, 꽃의 이름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정재민 외, 『한국의 민속식물 전통지식과 이용』(국립수목원, 2017)을 참고했다. 이 책에 식물의 각 지역별 이명(異名)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한편 식물 표본은 국가생약정보(<https://www.nifds.go.kr/nhmi/search/otalSearch.do>)를 참조했다.



<그림 5> 떡갈나무.  
잎이 넓적넓적함



<그림 6>  
속소리나무(신갈나무).  
잎 사이 간격이 촘촘함



<그림 7>  
재량나무(졸참나무).  
참나무과 나무 중  
잎이 가장 작음



<그림 8>  
보춤나무(상수리나무)

잎 사이가 넓직한 이 나무의 모습을 적절히 표현한 말이 된다. 한편 신갈나무의 이명 중 하나인 속소리나무는 잎이 비교적 작고 잎 사이 간격이 촘촘하다. 따라서 속소리나무를 형용한 ‘버썩버썩’은 여러 용례 중 ‘어디에 아주 가까이 다가드는 모양, 밀착한 모양’을 나타낸 말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슷한 두 나무를 짝짓고 차이를 적절히 구분해 표현한 구절은 나무에 대한 작가의 경험적 지식의 심도를 알게 한다.

‘조붓조붓 재량나무 부웃부웃 보춤나무’도 모두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의 잎 모양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조붓조붓’은 ‘여럿이 조금 좁은 듯하게 연이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서 좁고 긴 잎이 연달아 있는 재량나무(졸참나무)의 특징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데, 보춤나무는 상수리나무의 이칭이라는 점이 확인되지만 ‘부웃부웃’<sup>18)</sup>이라는 형용어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또한 ‘몽툭몽툭 싸리나무 물긷물긷 광대싸리’와 같은 구절도 비슷한 두 나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작달막하다는 뜻의 ‘몽툭몽

18) 부웃부웃: 관소리 『춘향가』의 옥중상봉(獄中相逢) 장면 중에 “향단이는 앞을 서고 걸인 사위 뒤를 따라 옥으로 내려갈 채 밤은 적적 깊었는데 인적은 고요하고 밤새들만 부웃부웃”이라는 구절이 있어(어떤 본에서는 ‘붓붓’이라고도 함) 이 말이 부엉이 같은 밤새 소리를 형용한 음성상징어로 쓰이기도 했음은 확인되나 지금 이 용례에는 적실하지 않은 듯하다. 후고를 기다린다.

톡'은 키가 작고 옆으로 퍼져 자라는 싸리나무를 형용하기에 적절한 말이고, '식물에 물이 올라 싱싱하고 야들야들하다'는 뜻의 '물긱물긱'은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광대싸리의 어린 새순을 표현하기에 마땅하다. 이 구절에서는 음성상징어의 지역적 용법이 주목된다. 기실 '몽톡몽톡'은 '여러 개의 가는 물건의 끝이 다 아주 짧고 무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로, '물긱물긱'은 '죽이나 풀 따위가 매우 묽은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으나,<sup>19)</sup> 이런 일반적 의미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에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반면 경북 북부 지역 방언 사전의 '몽탁하다'라는 표제어에 딸린 '끓어서 몽쳐 놓은 것처럼 짙막하다'라는 설명이 이 상황에 더 적절해 보인다.<sup>20)</sup> '물긱물긱'은 방언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북 김천 출신 시인인 문태준의 시구에서 “물긱물긱한 풀밭”이라 하여 더 적절한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sup>21)</sup>

이렇게 『소백산대관록』의 작가가 지닌 나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세밀하며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 지금의 어문학 연구자가 따라잡기 쉽지 않은 수준을 보여준다. 게다가 작가는 지역 방언에 해당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나무의 특징을 포착하고 구분하는 데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괄목할 만하며, 지금의 연구자가 따라잡기 어려운 것은 나무의 생태에 대한 경험적 지식뿐만이 아니다. 작가는 고유어에 대한 놀라운 감각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나무의 이름들에 대한 언어유희를 구사하는데, 이때 나무 이름의 소리와 뜻이 다각도로 활용되는 양상이 흥미롭다.

‘만경창과 배나무’는 배[船]와 배[梨]가 동음이의어인 점에, ‘휘휘친친 감나무’는 ‘감[柿]이 ‘감다’의 어근과 소리가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루어진 구절이며, ‘자빠졌다 잣나무 엮어졌다 엄나무’도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한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설 구성 방식에는 “가자 가자 감나무 / 오자 오

19) '물긱물긱'은 전남 방언으로는 '뿔뿔뿔'의 유의어로 확인되는데 이 역시 해당 구절과는 용법이 다르다.

20) 김정균, 『안동방언사전』, 안동문화원, 2009, 153면.

21) “저기서 이쪽으로, 내 귀뿌리에 누군가 풀벌레 / 소리를 확, 쏟아부었다 // 쏟아붓는 물에 나는 흥건하게 갠혀 / 아, 틈이 없다 // 밤이 깊어지자 나를 점점 세계 끌어당기더니 / 물긱물긱한 풀밭 깊숙한 테로 끌고 갔다” 문태준, 『가을 창가』, 『먼 곳』, 창비, 2012, 80~81면.

자 옷나무 / 싸리나무야 싸위라 / 참나무야 참아라”라는 「나무타령」<sup>22)</sup>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렇긴 하나 『소백산대관록』의 나무 목록을 구성하는 언어유희는 동요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피꼬리 펼 펼 노린재 오리가 둥 둥 물가나무’는 노린재나무의 색깔로부터 노란 피꼬리를, 물가나무(물갈나무)라는 이름에서 물을 헤엄치는 오리를 떠올린 결과인데, 새의 이름과 움직임은 나타내는 음성상징어를 통해 일관된 대구를 이루어 읽는 재미를 준다. ‘서기영롱(瑞氣玲瓏) 서나무 재장발라 재장나무’는 서나무(서어나무)에서 상서로움[瑞]을 읽어내고 재장나무(자작나무)에서 ‘재장바르다’(어떤 일의 첫머리에 좋지 못한 일이 생겨 꺼림칙하다)라는 뜻을 추출했는데, 의미상 상반된 내용을 통해 선명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작가는 나무의 특징을 적절히 수렴하고 이름의 음과 뜻으로 다채로운 언어유희를 시도하며, 이 모든 것을 다시 대구의 형식으로 연결시키는 이중의 정교한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로써 한자어와 고유어에 두루 걸친 그의 풍부한 어휘력을 확인하게 된다.

작가는 대구로 미처 수렴하지 못한 나무의 이름들을 목록에 추가한 후 다래와 머루, 쥐다래와 뽕팡귀 등의 덩굴식물들을 묘사하며 소백산 나무 목록의 결론을 맺는데 이 부분이 전체 목록에 특별한 정감을 부여한다.

먼저 말미에 추가된 나무들의 이름들로부터 그 나무들에 대한 목록 작성자의 애착을 읽을 수 있다. 시인 진은영은 백석(白石, 1912~1996)의 시를 평하며 ‘존재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시가 된다니 참 신기한 일’이라 했고, ‘나열할 목록이 아무리 길어도 소중한 존재들의 이름은 기타 등등으로 생략되지 않기에 기타 등등이라고 쓰지 않는 것이 목록 작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진은영은 ‘하나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호명하는 성실한 단순함’이 목록의 시학(詩學)에서 핵심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sup>23)</sup> ‘들충목, 산유자, 박달나무, 인가목, 마가목, 들메나무’의 이름을 정성껏 더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호명’하는 백석의 시에 함축된 것과 거리가 멀지 않을 것이다. 이 이름들까지 더해지며 ‘술한 잡목이 무성하여 울밀하게 우거진’ 소백산의 풍경

22) 현영란, 『언어유희동요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표현양상』, 『한국민요학』 10, 한국민요학회, 2002, 297~316면.

23) 진은영, 앞의 글, 115~116면.

은 훨씬 다채롭고 정다워진다.

머루와 다래, 쥐다래, 뚝팡귀(노박덩굴)<sup>24</sup> 같은 덩굴이 그 슬한 나무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고 표현된 마지막 구절들은 덩굴식물과 조화를 이룬 자연림이 드물지 않은 실제 소백산의 풍경과 부합하거니와,<sup>25</sup> 그 풍경과 한 몸이 된 시인의 흥취를 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래 덩굴 머루 덩굴 쥐다래 덤불 뚝팡귀가 / 이리저리 서로 만나 원불상리(願不相離) 맹세하고 / 얼크러지고 틀어져서 휘휘친친 감겼구나 / 밤이나 낮이나 한몸 되어 사시장청(四時長靑) 춤을 춘다’라는 그 구절은 이제껏 언급된 소백산의 모든 나무들이 여러 덩굴식물 덕분에 서로 헤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사철 푸르른 춤을 춘다는 흥겹고도 아름다운 장면으로 소백산 나무의 시를 마무리한다. 나무들이 서로 다정하게 연결된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시인의 눈이 놀라운데, 나무의 기쁨에 공감하는 그 덕분에 이 목록이 한층 다정해졌다.

다음은 꽃의 목록이다.

③ 그 귀경은 거계 두고 또흔 저편 바리보니  
만화방창 꽃치핀다 무신 꽃치 피엿던가  
도화 이화 만발하고 계화 흥화 자진 곳의  
오리불실 모미꽃과 울긋불긋 창꽃치라  
반보러 빗춘 자지꽃과 곱고 고은 금은화라  
화중왕은 목단화요 용산낙모 국화꽃과  
호면군즈 연꽃치요 반소미인 미화로다  
사시불낙 무궁화요 삼월비설 비꽃치라  
향일흔는 측구화요 망월흔는 단월꽃과  
一三二등 질너꽃과 六七十연 할미꽃과

24) 뚝팡귀: 뚝방구덤불. 노박덩굴과의 덩굴식물로, ‘노팡개더울’, ‘노박덩굴’, ‘노팡개더울’, ‘미역줄나무’, ‘매역순나무’라고도 한다. 이웃 나무에 감아 올라가거나 바위에 기대어 자란다. 서보월 외, 『경북 북부지역 방언사전』(한국문화사, 2019) 81면에 덩굴식물의 이름으로 ‘노관구’가 등재되어 있으며 “노관구가 다래순 뜯어 먹는 거 같이 그런 거 있어. 예전에 우리 클 때는 먹을 게 없으니 노관구도 역시 먹었어”라는 예문이 있다.

25) 남효창, 『소백산 주목 군락지』, 『월간 산』, 2007년 9월 20일 입력. “(신갈나무가) 다래덩굴과 어울려 자연스러운 자연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자연의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구절 참조. (<https://s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0>)

반작 " " 꺾리꽃과 조막 " " 산사꽃과  
 흐들흐다 흙박꽃과 사랑흐다 귀비화라  
 왜철죽과 진달니요 봉슈하며 만드람니  
 나부는 펄 " 춤乙 추고 버리는 잉 " 노리흐니

도화(桃花), 이화(李花), 계화(桂花), 행화(杏花), 모매꽃, 참꽃(참꽃), 자지꽃(지치꽃), 금은화(인동꽃), 목단화(모란), 국화, 연꽃, 매화, 무궁화, 배꽃, 측구화, 단월꽃, 쫄레꽃, 할미꽃, 패랭이꽃, 산사화, 함박꽃, 귀비화, 왜철죽, 진달래, 봉선화, 맨드라미 등 26종의 꽃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참꽃이 진달래와 같으므로 실제로는 25종으로 수렴된다. 아열대에 가까운 남방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계화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경험세계의 꽃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꽃들을 형용할 때 ‘용산낙모(龍山落帽) 국화꽃’, ‘사시불락(四時不落) 무궁화’처럼 한자어구를 쓴 것과 ‘반짝반짝 패랭이꽃 조막조막 산사꽃’처럼 고유어 음성상징어를 쓴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두 꽃으로 대구를 이루는 구성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왜철죽, 진달래, 봉선화, 맨드라미’ 4종의 꽃이름을 추가하고 만화방창(萬花方暢)한 꽃밭에 춤추는 나비와 노래하는 벌을 그려넣어 흥겹게 마무리를 짓는 방식은 앞서 나무 목록의 경우와 비슷하다.

꽃의 목록은 『소백산대관록』에 함께 수록된 『텐동어미화전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텐동어미화전가』 후반부의 ‘꽃 화자 노래’의 내용이 이 목록과 겹치기 때문이다. 목록 중의 무궁화, 도화(『텐동어미화전가』에서는 홍도화), 이화, 계화, 금은화, 측구화, 진달래(『텐동어미화전가』에서는 두견화), 봉선화, 국화, 철쭉, 쫄레꽃, 행화(『텐동어미화전가』에서는 살구꽃), 연꽃, 목단화, 매화(『텐동어미화전가』에서는 옥매화), 함박꽃, 참꽃이 『텐동어미화전가』의 ‘꽃 화자 노래’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어 상호 참조를 요한다.

그렇지만 둘을 비교했을 때 『소백산대관록』의 꽃 목록 편이 『텐동어미화전가』의 ‘꽃 화자 노래’보다 관념성이 덜하고 실제 경험세계와 가깝다 하겠는데, 이 점은 『소백산대관록』에만 있는 모매꽃과 맨드라미 같은 더 흔하

고 수수한 꽃의 이름에서 우선 확인된다. 그 중 ‘모매꽃’은 나팔꽃과 비슷한 분홍빛 꽃을 피우는 ‘메꽃’의 경북 북부 방언으로 이육사(李陸史, 1904~1944)의 시구(詩句) “술레잔 두 뺨 우에 모매꽃이 피엿고”에서 용례가 확인된다.<sup>26)</sup> 모매꽃을 수식한 ‘오리볼실’이라는 말은 『텐동어미화전가』에서도 두 차례 더 사용되었다. “오리볼실 고흔 빗튼 자녀 얼굴 비식흐의”와 “오리볼실 잉도볼은 흥도화가 빗치 곱다”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두 용례 모두에서 ‘오리볼실’은 발그레한 얼굴빛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육사의 시구에서 모매꽃의 원관념이 된 ‘술레잔 뺨’과 맥이 닿고, 『소백산대관록』에서 분홍빛 메꽃을 형용한 것과도 맥이 닿는다. 이에 ‘오리볼실’을 ‘분홍 꽃잎처럼 발그레하고 고운 모양’을 표현하는 음성상징어로 보아도 될 듯하다.<sup>27)</sup>

이어지는 목록은 소백산의 나물에 대한 것이다. 앞서 바위와 나무, 꽃, 나물, 새의 목록들이 소백산 산행에서 접하는 근경(近景)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제 이 나물의 목록은 근경 중의 근경으로 거의 접사 렌즈를 쓰고 있다 할 정도로 대상과의 거리가 가깝다.

④ 꽃귀경도 좇타마는 쏘다시 바라보니  
 山中의 무별미호여 약초로 겸어과라  
 나물도 조홀시고 솟흔 나물 마니 잇네  
 양지작의 올고사리 음지작의 늦고사리  
 한산 장승 모슈디와 층주 남촌 단월이며  
 넘적 " " 참밥취요 말숨 " " 전디나물  
 머리작가 중딩가리 보살함미 바랑취라  
 말긋 " " 장옥이요 것칠 " " 쉧옥이라

26) 이육사, 『초가』(草家)(김용직 편, 『이육사전집』, 깊은샘, 2004) 68면의 “암밭에 보리밭해 말 매나물 캐러간 / 가신애는 가신애와 종달새소리에 반해 /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 술레잔 두 뺨 우에 모매꽃이 피엿고”라는 구절 참조. 같은 페이지의 주석에 의하면 ‘술레잔’의 뜻은 ‘상기된’으로 추정된다.

27) 그 외 작자 미상의 『망월봉 화전가』(경북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방두들, 1946년 작) 중의 “오리볼실 두견화를 마음대로 따다 놓고 / 동유 불러 묻는 말이 엇지엇지 꾸어볼고”라는 구절과 『낭송가사집』(이대준 편저, 안동문화원, 1986)에 수록된 이예래의 『춘흥화전가』(1954년 4월 10일 작, 경북 상주군 외서면) 중의 “좋은 화장 좋게 하고 / 일등의복(一等衣服) 차려 입고 맵시있게 나오는 모양 / 오리볼실 화용월태(花容月態) 선경선녀(仙境仙女) 하강(下降)한 듯”이라는 구절이 더 참조된다.

즐기 조은 며역취요 즐기읍는 피랑취라  
 빙〃 도라 도라지요 어덕더덕 더덕이라  
 석 자 가웃 보자나물 석 자 두 치 보선나물  
 마디 총〃 잔디썩과 마디 늘성 썩쥬기라  
 구붓〃〃 활장나물 웃둑〃〃 슈염취라  
 소복〃〃 쓰리나물 조박〃〃 썩나물이  
 연흔다고 물강이라 향그럽다 미나지며  
 물신〃〃 물드병이 질긋〃〃 기암취라  
 칠첩팔첩 병풍나물 일곡이곡 울고사리  
 희동창 미발나물 구근치 두릅나물  
 청삼사리 영경귀요 오용지용 말밭이요  
 쪽〃 썩바 나싱이요 자밭쓰더 쫓다지라  
 향소가치 맛슬 보니 산중의 별미로다

④단락에서 작가는 소백산의 풍경을 구성하는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산나물을 하나하나 귀하게 호명한다. 이 점은 34종의 산나물을 들어 하나하나 어울리는 설명을 빠뜨리지 않는 태도에서 우선 드러난다. 앞서 나무와 꽃의 목록에서는 설명을 붙이지 않은 채 꽃이나 나무의 이름만을 더 나열하기도 했으나, ④에서는 모든 나물의 이름에 합당한 형용을 더했다. 여기에는 목록에 이름을 추가하는 성실함을 넘어 그 이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산나물의 품질이 훌륭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데,<sup>28)</sup> 소백산 산나물은 특히 향기가 높기로 유명하다. 이 점은 전근대 사대부 문인의 소백산 유산기(遊山記)에도 종종 언급되었다. 예컨대 영주(榮州) 선비 송정환(宋鼎銓, 1711~1778)이 1747년에 쓴 유기에는 소백산 산행 중 상가타암(上迦陔庵) 근처에서 채취한 산나물로 밥을 싸 먹으며 ‘그 향기를 삼켰다’고 한 대목이 보인다.<sup>29)</sup> 그 표현은 ‘향소가채(香蔬佳菜) 맛을 보니

28) 편해문, 『산나물야 어딴노?』, 소나무, 2006, 21~24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의 황학산에서 20년 이상 산나물을 채취한 여성 노인(당시 67세)의 “야산에 나는 거는 나물이 먹으면 썩워요, 글고 높은 큰 산에 나는 나물은 먹으면 향이 좋고 씹맛이 없어”라는 말이 참조된다. 편해문의 이 책은 산나물과 산나물을 채취하는 경북 북부지역 여성 노인들의 생애에 대한 민속학적 보고서다.

29) “암자 뒤 샘물이 돌학에서 솟구치는데 몹시 맑고 차다. 마침내 그 곁에 머물러, 중에게 산

산중의 별미로다'라는 ④의 결론과 같은 취지이지만, 그런 결론에 이르도록 한 경험이나 지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산나물 목록을 만든 작가는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한 양반 남성인 송정환과 뚜렷이 구분된다. 위 목록으로 보건대 그 작가는 송정환과 달리 산나물을 직접 채취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적 지식의 소유자다. 당연한 말이겠으나 이 작가가 목록에 보여준 껍진함을 통해 나물이 그의 삶에 가까이 있는 절실한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송정환은 승려에게 캐 바치도록 해 즉석에서 먹은 향기로운 산나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소백산대관록』의 작가는 무려 34종에 이르는 산나물의 이름을 제시했다. 산나물에 대한 이렇게 풍부한 정보는 국문 시가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데, 이를테면 경북 월성군 안강면의 '나물 노래'에 올고사리와 늦고사리, 돌개나물, 호박나물, 샷갓나물, 활나물, 권두서리, 참나물 등 8종이 언급된 것이 그나마 많은 편에 해당하고, 이런 부류의 민요에는 5~6종의 나물이 언급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노래는 주로 나물 켈 때 부른 노동요이고 가창자는 그 일을 오래 해 왔던 노년의 여성들이다.<sup>30)</sup> 그들은 분명히 나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고 나물 캐는 일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소백산대관록』 작가와 겹쳐진다. 그럼에도 이런 노래에서 나물 이름의 목록이 소략한 것은 가장 상황의 결과라 하겠다. 노동요의 목적은 일하는 시름을 더는 것이지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삼은 노래인 정학유(丁學游, 1786~1855)의 『농가월령가』에서도 산나물의 목록은 단출하여 3월령 중에 삼주, 두릅, 고사리, 고비, 으아리 총 6종의 나물 이름을 들고 있을 뿐이다.<sup>31)</sup>

④에서 산나물의 목록을 구성하는 방식은 앞서 꽃이나 나무를 다룰 때와 유사하여, 대상의 생태나 특징을 표현하거나 이름을 가지고 언어유희를 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비슷한 점을 지닌 두 가지를 대가로 병렬한 것도 마찬

나물을 캐 바치도록 하였다. 밥에 싸서 먹으며 그 향기를 삼켰다.”(菴後有泉涌出石函中, 甚清冽. 遂站于其上, 使僧採得山菜以進, 裹飯而咽其香) 송정환, 『小白山遊錄』, 『東渠集』 권3.

30) 편해문, 앞의 책, 35~37면.

31) “전산의 오던비 가야시니 살진향취 쫓더오더라 삼주두릅 고소리며 고비 도랏지 에이리를 일분은 역거달고 일분은 못쳐먹시” 정학유, 『농가월령가』(임기중 편,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https://www-krpia-co-kr-ssl.access.yonsei.ac.kr/product/detail?plctId=PLCT00004832&noId=NODE06103282#none>)

가지다.

그런데 ④단락의 경우 나물의 생태나 특징을 다룬 것이 22건으로 언어유희를 한 12건의 2배에 육박한다. 이 점은 절반 이상을 언어유희로 엮어냈던 나무나 꽃, 바위의 목록과 사뭇 다르다. ④에서도 ‘청삽사리 엉경퀴 오용지용 말밤’이라 하여 엉경퀴라는 이름에서 청삽사리가 쾅쾅 짚는 소리를 발견하고 말밤(마름)이라는 식물의 이름에서 ‘오용지용’하는 말 울음소리를<sup>32)</sup> 추출하고, ‘뽕뽕 돌아 도라지요 어덕더덕<sup>33)</sup> 더덕이라’라고 이름의 소리를 활용한 창의적인 언어유희가 적지 않으나, 여기서는 작가가 주의깊게 다룬 나물의 생태와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양지쪽의 울고사리 음지쪽의 늦고사리’는 일조량에 따른 고사리의 생태를 언급했고 ‘쑥쑥 뽑아 나생이요 잡아뜯어 꽃다지라’는 뿌리가 길어 쑥 뽑아야 하는 냉이와 잎 부분만 뜯는 꽃다지의 채취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말했다. 그 외 ‘넙적넙적 참밭취 말숨말숨 전대나물’, ‘말긋말긋 장록이요 거칠거칠 청옥(서덜취)이라’, ‘줄기 좋은 미역취요 줄기 없는 패랭취라’, ‘마디 총총 잔대썩과 마디 늘성 딱주기라’, ‘구붓구붓 활장나물 우뚝우뚝 수염취라’, ‘소복소복 싸리나물 조박조박 깨나물이’, ‘연하다고 물강(무릇)이라 향기롭다 미나리며’, ‘물신물신 몰드병이 질긋질긋 개암취라’라는 등의 구절은 다채로운 음성상징어를 구사하여 산나물의 특성을 적실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 적절한 대구로 연결지어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나물에 대한 아름답고 살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목록의 언어는 시적이며, 최종적인 결과물은 나물도감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

오랫동안 나물 캐는 일을 한 여성의 경험과 지식을 수렴하여 가장 상세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수준 높은 산나물 목록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

32) ‘오용지용’은 말 울음을 표현한 음성상징어이다. 잡가 『춘정난감설』(春情難堪說)에 “三年 묵은 물가죽은 외용지용 우지는데”라는 구절이 있다. ‘말밤’은 마름이다. 마름은 15세기에 ‘말암’이라 했고 『역어유해』에 “菱角 마람 水栗 마람”이라 했는데, ‘水栗’이라는 말이 말밤의 ‘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33) ‘어덕더덕’은 벼랑이 가파른 모습을 뜻하는 말이다. ‘어덕’은 ‘벼랑’의 방언이다. 경북 안동시 고향인 안상학의 시 『안동소주』(『안동소주』, 실천문화사, 1999) 중의 “경경 짚어 개목다리 건너 / 말 몰았다. 마뜩 지나 한 되 두 되 선어대 / 어덕더덕 대푸벼리 해 뜬았다. 불거리”라는 구절이 참조된다. 시 가운데 ‘개목다리’, ‘마뜩’, ‘선어대’, ‘대푸벼리’, ‘불거리’는 안동의 지명인데 이렇게 시어를 조직하는 방식은 『소백산대관록』과 『텐둥어미화전가』에서 소백산 인근의 지명을 시어로 활용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으로서 「소백산대관록」의 작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으로 작가는 소백산의 근경 유람을 새의 목록으로 마무리짓는다.

㉕ 그 귀경도 좇커이와 저 귀경도 더욱 좇타  
 시가 " " 나라든다 무신 시가 나라드나  
 옥이청산 두견시아 부러귀라 슬픈 소리  
 나는 차마 못 듯것다 쏘 시 흥나 " 라드니  
 말 잘흐는 잉무시며 춤 잘추는 학두림이  
 소리 조흔 싸오기며 오식치장 화춤이라  
 잉공즈 봉디부며 청도사자 효자오라  
 근원 조은 원앙시아 청강녹수 어디 두고  
 웃지하야 여계 완노 나를 보라고 이곳 완나  
 방울시 달낭 호반시 슈루룩  
 청노산 지러기 말이강 청부안  
 싹다구리 거동바라 구무乙 치우라고  
 이 나무 가도 싹다글 " 저 나무 가도 싹다글 "  
 풍덕시 거동 보게 풍연지기 원이라서  
 이리 가도 풍등글 " 저리 가도 풍등글 "  
 분슈 읊는 부영시는 부영 " " 나 물너라  
 밋시인는 공작이며 여렵시다 황시로다  
 연비여천 소리기와 위풍 잇는 독슈리며  
 슈옥이 싸옥이 창경시 오작이라  
 노고조리 흰 질 쓰고 포곡쳐 " 최춘중乙  
 오고가난 벽궁시아 누乙 보고져 싹피 우나  
 이리 가도 벽궁 " " 저리 가도 벽궁 " "  
 강남셔 나온 제비 흥 놉 구주乙 차자 쏘 왓고나  
 허공의 동실 놉피 썩셔 날乙 보고 반기는 듯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족 " 남 " 흥너

따오기와 빼꾸기가 두 번 나온 것을 제외하여 대략 26종의 새를 수렴한 이 목록은 ‘호반새 슈루룩’ 등의 표현을 보건대 판소리 「적벽가」 등에 나오는 새타령 대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34)</sup> 따라서 목록의 다양성이

나 표현의 독창성 등에서는 앞서의 나무나 꽃, 산나물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

그런데 ⑤단락에서 주목되는 것은 작가가 이 새들과 정감을 나누는 태도이다. 작가는 ‘말 잘하는 앵무새며 춤 잘추는 학두루미’, ‘앵공자(피꼬리) 봉대부(봉황)며 청조사자(파랑새) 호자오(까마귀)라’라고 여러 새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목록을 구성하며 간간이 새들에게 말을 건네며 감정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육리청산 두견새야 불여귀라 슬픈 소리 / 나는 차마 못 들겠다’에서는 두견새의 슬픈 소리에 깊이 공감하고, ‘근원(금슬) 조은 원앙새야 청강녹수(靑江綠水) 어디 두고 / 어찌하여 여기 왔노 나를 보려고 이곳 왔나’라 하여 자기를 찾아온 원앙새를 반가워한다. ‘오고가는 벽궁새(뺨꼭새)야 뉘를 보고저위 슬피 우나 / 이리 가도 벽궁 벽궁 저리 가도 벽궁 벽궁’, ‘강남서 나온 제비 한 놈 구주(舊主)를 찾아 또 왔구나 /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족족 남남(喃喃)하네’ 같은 구절에서도 자신을 따르며 가까이 날고 있는 새들을 친근히 여기고 다정히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⑤단락에서 새들에게 건넨 말은 작가의 혼잣말이 아니었으니,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 하루의 산행이 끝날 무렵 바로 그 새들이 저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기 때문이다.

말잘하는 앵무새가 날乙 보고 인사하네  
 오늘날의 들 본 경乙 니일 보자고 당부하고  
 소리 조은 싸오기는 여성혀여 이른 마리  
 명산大천무한경乙 이곳 자고 니일 보게  
 금의공자 고은 말노 명일날노 다시 만나  
 슈양동구천만사의 말근 노리 다시 듯기  
 시무심산 저 가마귀 가우가우 지축하고  
 만수산의 방울시는 달낭 " " 우며 가고  
 청계슈의 활미시는 전문다고 가불 " "  
 청노산의 외지리기 자용乙 차자 밧비 가고  
 그 가운데 모로는 시가 종일 노든 인정으로  
 정다이 하는 소리 우리 전일 못 만나서

인사는 서로 읊거이와 종일 갖치 노라시나  
 니마음이 미진커든 군자 마음 오작홀가  
 부디 명일 다시 만나 노세 " " 당부흐니

앵무새는 ‘오늘 덜 본 풍경을 내일 보자’고 당부하며 인사하고, 따오기는 ‘명산대천의 무한한 풍경을 여기서 자고 내일 보게’라고 소리를 높여 일러 준다. 금의공자(金衣公子) 띄꼬리도 ‘명일(明日) 다시 만나 수양동구천만사(垂楊洞口千萬絲) 아름다운 버들 사이로 부르는 나의 노래를 다시 듣게’라고 곱게 말한다. 까마귀와 방울새, 할미새, 외기러기 등 앞서 산행의 초입에 함께 했던 새들이 다시 나와 저마다의 인사를 건네는 가운데 ‘모르는 새’의 존재가 유독 두드러진다. 작가는 잘 몰랐지만 그 새는 소백산에서 시종 그의 곁에 있었다. ‘종일 놀던 인정으로 정다이 하는 소리’라는 표현은 이 새의 이야기가 앞서 ⑤단락에서 작가가 새들에게 건넨 말에 대한 가장 다정한 응답임을 알려준다. 그 새는 ‘우리 전일 못 만나서 / 인사는 서로 없거니와 종일 같이 놀았으나 / 내 마음이 미진커든 군자 마음 오죽할까 / 부디 명일 다시 만나 노세 노세’하고 은근한 당부와 다정한 인사를 건넨다. ‘모르는 새’의 말은 처음으로 소백산에 올라 그 풍경과 하나하나 조우한 하루 동안 이 산에 듬뿍 정이 들어 떠나기를 아쉬워하게 된 작가의 마음을 대신하여 전하고 있다.

#### IV. 결론

이 글에서는 『소백산대관록』을 소백산 일대를 유람한 하루 동안의 경험을 큰 줄기로 삼은 가사로 보고, 그 여정의 도입부 및 근경(近景)을 다룬 작품 전반부의 다섯 단락에 한해 작품론을 진행하였다. 근경을 다룬 전반부는 소백산의 바위, 나무, 꽃, 나물, 새의 목록이라는 형식을 이루고 있으며,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목록에 이 장소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깃들여 있다.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체의 지도와 산맥의 계보 가운데에 소백산이라는 장소를 초점화하고, 소백산 산행을 시작하기까지를

다른 도입부에서 감지되는 시적 화자의 형상은 소백산 인근의 거주자인 사대부 지식인 남성애에 가깝다. 비슷하게 주경야독을 하는 처지에 모처럼 산행을 나서는 시인과 두세 벗들은 선비의 복장인 복건을 착용하고 있으며 여행을 시작하는 흥취를 표현할 때도 당시(唐詩) 구절을 즐겨 차용하고 있어 그런 복장이 자아내는 분위기에 부합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행이 전개되는 상황을 반영한 다섯 단락, 즉 바위, 나무, 꽃, 나물, 새의 목록이 시사하는 시적 화자의 형상에서는 도입부에서와 같은 젠더적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한시를 인용하는 대신 다채로운 음성상징어와 고유어 표현을 통해 소백산의 자연물들이 이루어내는 흥겨운 풍경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그려냈으며, 풍경과 주고받은 마음이 스민 이 목록은 저마다 소백산의 바위와 나무, 꽃, 산나물, 새들의 시(詩)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점에서 『소백산대관록』의 눈에 띄는 수사법인 열거법은 ‘소중한 존재들의 이름을 기타 등등으로 생략하지 않고 다정하게 호명하는’<sup>35)</sup> 목록의 시학(詩學)을 구현하고 있다.

한편 다섯 단락 중 나물의 목록에 해당하는 것은 소백산에서 오랫동안 산나물을 채취하는 일을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껴진하고도 아름다운 고유어 표현을 만나 이루어진 시적(詩的)인 식물도감이라 할 만하며, 그 작가는 고유어 표현 역량과 산나물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갖춘 노년기 여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점은 『소백산대관록』과 『덴둥어미화전가』의 작가에 대해 고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본고는 『소백산대관록』의 전반부를 분석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추후 후반부까지 분석하며 이 작품이 구현한 ‘목록의 시학’의 또 다른 면모, 그리고 작품의 시적 화자가 지닌 젠더적 특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35) 진은영, 앞의 글, 115면.

## 참고문헌

### 1. 자료

- 작자미상, 『소백산대관록』(경북대 소장 필사본)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유교넷(<https://www.ugyo.net/>)  
국가생약정보(<https://www.nifds.go.kr/nhmi/search/totalSearch.do>)  
임기중 편,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https://www-krpia-co-kr-ssl.access.yonsei.ac.kr/product/main?plctId=PLCT00004832&utm\\_source=ebSCO&utm\\_medium=linkserver&utm\\_term=&utm\\_campaign=product](https://www-krpia-co-kr-ssl.access.yonsei.ac.kr/product/main?plctId=PLCT00004832&utm_source=ebSCO&utm_medium=linkserver&utm_term=&utm_campaign=product))

### 2. 단행본

- 김용직 편, 『이육사전집』, 깊은샘, 2004.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자원조사연구팀,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1998.  
김덕호,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 월인, 2001.  
김서령,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 푸른역사, 2019.  
김우선, 『산경표 톨아읽기: 지명의 역사지리적 함의와 백두대간』, 민속원, 2021.  
김정균, 『안동방언사전』, 안동문화원, 2009.  
문태준, 『먼 곳』, 창비, 2012.  
박혜숙,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 2017.  
서보월 외, 『경북 북부지역 방언사전』, 한국문화사, 2019.  
안상학, 『안동소주』, 실천문화사, 1999.  
영주문화유산보존회, 『소백산: 국립공원 소백산 유산록 및 시문 조사 발굴 사업』, 영주문화유산보존회, 2013.  
이동순 편, 『백석 시전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이상규,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2000.  
이정옥, 『소백산대관록 화전가』, 경진출판, 2016.  
정길수 역주, 『열녀춘향수절가』, 돌베개, 2025.  
정계민 외, 『한국의 민속식품: 전통지식과 이용』, 국립수목원, 2017.  
진은영,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마음산책, 2024.  
편해문, 『산나물아 어딴노?』, 소나무, 2006.

브라이언 딜런, 김정아 역, 『에세이즘』, 카라칼, 2023.

움베르토 에코, 오숙은 역, 『궁극의 리스트: 문학과 예술 속의 목록사』, 열린책들, 2010.

### 3. 논문

김하라, 『『텐동어미화전가』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405~440면.

박혜숙, 『『텐동어미화전가』의 작가 문제』,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145~174면.

배연형, 『관소리 새타령의 근대적 변모』, 『관소리연구』 31, 관소리학회, 2011, 201~237면.

양보경, 『조선시대 자연인식체계』, 『한국사시민강좌』 14, 일조각, 1994, 70~97면.

한영란, 『언어유희동요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표현양상』, 『한국민요학』 10, 한국민요학회, 2002, 297~316면.

## “Sobaeksan Daegwanrok” and the poetics of the list

Kim, Hara

I define “Sobaeksan Daegwanrok” as a Korean lyric that mainly focuses on the experience of a day of touring the Sobaeksan area. This paper is the result of a study of the work limited to the introduction and the first five paragraphs of close-up of the journey to Mt. Sobaek. Those five paragraphs are a detailed and meticulous list of the rocks, trees, flowers, wild vegetables, and birds of Mt. Sobaek, a reflection of the author's love for the place.

In the introduction to the work, before embarking on a full-scale hike, the author focuses on Mt. Sobaek among the maps and mountain ranges of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covers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hike. The figure of the poetic speaker perceived here is close to that of a male scholar-official living near Mt. Sobaek. The poet and his two or three friends, who work during the day and study at night, are out on a rare hike, wearing scholarly travel hats. They also frequently borrow phrases from Tang poetry to express their excitement at embarking on a journey, fitting the atmosphere their attire evokes.

However, in the five paragraphs that reflect the situation in which a full-scale mountain hike unfolds, namely the list of rocks, trees, flowers, wild plants, and birds, it is difficult to find gender characteristics like those in the introduction. Instead of using Chinese characters or quoting Chinese poetry, he or she used a variety of unique Korean phonetic symbols to create a strikingly beautiful depiction of the vibrant landscape of the rocks, trees, flowers, wild vegetables, and birds of Mt. Sobaek. This list, filled with the poet's exchanges with the landscape, is more than enough to constitute an independent poem.

Meanwhile, the list of wild vegetables among the five paragraphs can be said to be a poetic plant guide created by combining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a person who has been collecting wild vegetables in Mt. Sobaek for a long time with vivid and beautiful native Korean expressions. Accordingly, there is room to view

the author as an elderly woman with the ability to express herself in native Korean and experiential knowledge of wild vegetables.

Keyword: “Sobaeksan Daegwanrok”, Mt. Sobaek, place, list, phonetic symbols

접수일자: 2025. 9. 30.

심사기간: 2025. 10. 1.~2025. 11. 10.

계재결정: 2025. 11. 10.

